

# 正倉院 文書와 光明皇后願經\*

On the Ancient Documents of SHOSOIN(正倉院文書)  
and *Komyo kogo gankyo*(光明皇后願經)

佐々田 悠 (Yu, Sasada)\*\*

## ◁ 목 차 ▷

1. 들어가며: 문서와 경권	3.1 사경소의 변천과 서사 상황
2. 정창원 문서의 세계	3.2 五月一日經의 서사 상황
2.1 정창원 문서의 기본적 성격	3.3 製作 수법과 卷末紙背墨書
2.2 사경과 그 주변	3.4 제작 수법의 규모
2.3 고대의 「관청」론	4. 마무리: 한국 고사경 연구를 위하여
2.4 자료로서의 복잡성	<참고문헌>
3. 光明皇后願經의 세계	

## < 초 록 >

일본의 정창원에 전래된 문서와 8세기의 저명한 사경인 光明皇后發願一切經(五月一日經이라고도 한다)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정창원 문서는 동대사의 사경소가 작성한 1만 수 천점에 이르는 장부이며, 광명황후발원일체경은 그 사경소가 제작한 것이다. 양자는 내용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많으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제작의 경위나 목표로 삼은 일체경의 성격의 변화, 또 사경소 조직의 변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또 경권의 권말에 남은 문서로부터 언제, 누가 어떠한 수법으로 서사한 것인지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체경의 현물과 그것을 만들어 낸 조직의 장부가 양쪽 모두 남아 있어, 고대 사경 사업의 전체상, 나아가서는 고대 관공서의 운영 실태를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한반도나 중국의 고사경을 생각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조 사례가 될 것이다.

要語: 정창원 문서, 광명황후발원일체경, 동대사 사경소, 관공소의 운영 방법, 경권의 제작 수법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2-A00091).

\*\* 일본, 궁내청, 정창원사무소(yu.sasada@kunaicho.go.jp)

접수일: 2013년 12월 14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ere is a close relation between the ancient documents of SHOSOIN(正倉院文書) and *Komyo kogo hotsugan issaikyo*(光明皇后發願一切經) or *Gogatsu tsuitachi kyo*(五月一日經) which was a famous hand-copying sutras copied in the 8th century. The former was a type of ledger which covers 10,000 or more items in Sakyujo(寫經所), a script center, and the latter was made there.

Both of them have lots of corresponding points in terms of content. We can understand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the hand-copying sutras and the change of characteristics of the copied issaikyo sutras through the overall thinking. Also, we can study when, who and how the hand-copying sutras were manufactured. For such a reason, we can understand the holoscopic aspect of manufacturing the hand-copying sutras because there are the hand-copying sutras themselves and the ledger of the institution manufacturing them, and we can go one step forward to see the condition of operation in the ancient public offices. And they can be an important reference in considering the ancient hand-copying sutras in both Korea and China.

Key words: the ancient documents of SHOSOIN(正倉院文書), *Komyo kogo hotsugan issaikyo*(光明皇后發願一切經), Sakyujo(寫經所) or script center in Todaiji, methods of operation of public office, method of manufacture of sutras and document, etc.

## 1. 들어가며: 문서와 경권

본 보고는 일본의 정창원에 전래된 정창원 문서와 나라시대의 저명한 사경인 光明皇后願經(소위 五月一日經)을 대상으로 각각의 자료적인 특징이나 양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다. 불교학과 언어학적인 해설은 역부족인 탓에 불가능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 전개되었던 고사경의 하나의 사례로서, 어떠한 내용의 자료인지, 또 어떠한 역사적 경위가 있는지를 소개한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 한국 고사경과 구결의 연구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바가 있으면 다행스럽겠다.

## 2. 정창원 문서의 세계

### 2.1 정창원 문서의 기본적 성격

정창원 문서라는 것은, 동대사의 정창원(<자료 1>)에 전래된 8세기의 문서이다. 총수는 1만 수천점에 이른다. 그 대부분은 동대사에 놓인 사경소(사경을 행하는 부서)가 작성한 장부이며, 어느 시기에 정창원에 수납되었으나, 이윽고 존재가 잊혀져 버려졌던 것 같다. 잊혀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운’이며, 그럼으로써 지극히 양호한 보존 상태로 전래되었다. 그 후 19세기에 이르러 학자에 의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근대 이후에는 정창원에 전해진 다른 문물과 함께 ‘정창원 보물’의 하나로서 관리되고 있다(<자료 2>).

정창원 문서는 反故紙(한번 쓰고 필요 없어진 종이)의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문자를 쓰는 재료로서 사용된 후 종이 이면에 문자를 적기 위해 혹은 양면에 적은 후에도 한 번 더 종이로서 사용하기 위해 사경소에서 쟁겨두었던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종이 귀중했던 당시 율령공문류(율령 체제 아래에서의 공문서)는 최대 30년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이면을 이용하기 위해 각 부서에 보냈다. 사경소에도 보내졌다. 따라서 정창원 문서 중에는 언뜻 보면 사경소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공문류도 들어 있으며 그 이면에 사경소의 장부가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정창원 문서 속에는 사경소 관계 이외에도 실로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남아 있어 학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호적이나 正稅帳을 들 수 있다. 호적은 민중 지배의 기본 대장이며, 戶마다 구성원의 인명이나 연령, 가계, 신체적 특징 등을 적는 것이다(<자료 3>~<자료 4>). 正稅帳은 당시의 행정단위인 國마다의 收支 보고서이며, 현물 화폐인 벼를 단위로 해서 이자 딸린 貸借에 의한 수입이나 佛事 등의 행사나 물품 구입을 위한 지출 등을 적어 넣은 것이다(<자료 5>). 모두 율령에 기반을 두는 당시의 국가 체제의 실태를 알기 위한 아주 좋은 실례이다. 중국의 돈황·투루판에서 출토된 8세기 전후의 문서는, 율령의 본가인 당제국의 변경에서의 문서 행정의 실태를 보이지만, 정창원 문서는, 같은 8세기에 동아시아 지역의 변경에 위치한 일본이 율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하고자 했었는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호적이나 정세장 등의 공문류는 말하자면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존재이며, 극히 외부 지향으로 갖춰진 자료가 많다. 한편 정창원 문서의 대부분은 사경소의 운영에 관계하는 내부용 장부이다. 일상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작업의 현장을 볼 수 있어, 이쪽도 매우 흥미가 깊다. 구체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이 경우 사경과 그것을 유지하는 업무에 관한 것이다.

## 2.2 사경과 그 주변

정창원 문서의 대부분은 동대사를 造營한 造東大寺司의 하부 조직인 사경소가 작성·보관했던 장부이다. 造東大寺司 및 사경소는 국가가 설치한 관청이며, 세속 사람에 의해 운영되었다. 작업의 중심은 물론 사경이다. 案主라 불리는 통괄자 아래, 사경을 행하는 經師, 교정을 하는 校生, 料紙를 卷子로 만드는 裝潢이 작업에 임했다. 사경소 장부의 대부분은 이 안주가 작성한 것, 혹은 안주 쪽에 송달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장부를 읽어 가면 안주는 상사에 해당하는 造東大寺司의 관리로부터 지시를 받는 한편, 예산이나 물자를 요구하고, 수하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작업을 관리하고 급여를 지불하며, 또 외부의 조직과 경전의 교류를 하는 등, 經師 이상으로 문자를 구사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업의 내용에 대응해서 다양한 서식의 장부를 사용하고, 용어나 서체를 구분 사용하며, 각종의 기호를 쓰는 일도 있었다. 현장에서만의 종이나 먹의 사용 방법의 다양성에 놀란다.

그런데 정창원 문서에 남아 있는 사경소의 장부를 보면, 8세기의 어느 시점에, 어떠한 경위로 사경이 행해졌던 것인지, 어떠한 경권을 빼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장부에 등장하는 경권의 경향으로부터, 당시의 사상을 파헤치는 연구도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정창원 문서가 의의 깊은 것은, 일련의 사경에 의한 ‘제품’인 경권이 정리되어 남아있다는 것이다. 造東大寺司의 사경소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光明皇后가 발원한 일체경의 제작이었다. 이 일체경은 天平~天平勝寶年間(729~756)을 통해서 제작되었고, 권말에 ‘天平十二年五月一日’ 付의 願文을 가지는 사실에서 五月一日經이라고 부르고 있다(<자료 6>). 현재 정창원의 성어장 경권 속에 750권 정도가 현존하며 다른 소장처도 포함하면 1,000권 가까이 현존하고 있다. 사실은 이 경권의 현물의 일부에는 經師나 校生の 기입이 남아있고, 이것이 사경소 장부의 내용과 대응하는 것이다. 일체경의 현물과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장부가 모두 갖춰짐으로써, 누가 무엇을 베끼고, 어떠한 수순으로 경권이 제작되었는지, 또 그것에 동반해서 관청에서는 어떠한 업무가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고대에 사경 사업이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하지만, 다만 그 이전에 조금 더 정창원 문서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 정창원 문서와 경권이 갖추어진 것은, 불교 분야만에 머물지 않는 古代史 上の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 2.3 고대의 「관청」론

造東大寺司는 동대사의 조영을 담당하며 사경소는 造東大寺司의 하부 조직으로서 사경을 담당했다. 이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특수한 一分野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을 조직하고 어떤 특정의 작업을 하게 하는 ‘관청의 운영’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나 물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사경소의 경우에 대해서 말하면, 경권의 제작이라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 우선 노동력(경사, 교생 등)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사경에 빠트릴 수 없는 물자(紙·軸·筆·墨)를 조달한다. 사경의 저본이 되는 텍스트(本經이라 한다)를 빌려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조달한 물자·본경을 각 담당의 經師들에게 할당한다. 그때 收納帳이나 充紙帳, 充筆墨帳이라는 장부를 작성하여, 물자와 본경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된다(<자료 7>). 그와 동시에 작업을 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 필요해진다. 經師들의 작업복(정창원 보물 가운데 실물이 남아 있다)이나 매일의 식사, 급여(사경이므로 『布施』라 한다)를 조달하여 각각에게 지급한다(<자료 8>). 물론 그때마다 장부가 작성된다. 작업량과 급여의 기준을 보이는 문서를 관청 내에 붙이는 일도 있었다(<자료 9>). 그 외에도 결근계나 돈의 貸借 등, 하급 관리들의 실태를 볼 수 있는 생생한 문서도 남아 있다.

이들의 일련의 작업과 장부를, 表의 형식으로 정리하면 <자료 10>과 같다. 이 표는 사경소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심이 되는 작업 부분을, 예를 들면 都城의 造營이나 무기의 생산 등으로 바꿔 놓아도 된다. 적어도 생산부문의 관청은 대략 같은 패턴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장부의 사용 방법, 문자의 사용 방법이라는 의미에서는 널리 관청 전반에 공통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의 관청의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창원 문서는 재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청의 운영은 종이만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땅 속에서 출토되는 목간도 중요한 도구이다. 일본에서는 平城京이나 지방의 관청 유적에서 수많은 목간이 출토되고 있다. 고대의 작업 현장에서는, 종지와 나무는 재질적인 특징(종이는 보관하기 쉬우며, 나무는 단단하므로 옮기기에 편리하고 풍부한 점 등)에 의해 능숙하게 구분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자료 11>과 <자료 12>는 시기도 장소도 다르지만, [日付+下米+付人名+責任者名]이라는 요소가 같으며, 아주 유사하다. 이들은 식료가 되는

쌀의 지급에 다루어진 목간과 장부일 것이다. <자료 11>의 목간은 매일 지급한 것을 적은 것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 12>와 같은 종이 장부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자료 11>은 쌀의 지급을 허가한 전표이며, 이 목간을 식료 보관 담당 부서로 가지고 가면, 목간에 대신해서 식료를 건네받았는지도 모른다. 식료 보관 담당 부서에서는 이 목간에 구멍을 뚫어 정리해 뒀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 12>와 같은 장부를 정리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문서와 목간 쌍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각각의 기능이나 의미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당시 작업의 실태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최근 목간의 출토가 잇따르고 있는 한국의 고대 국가에도 해당할 것이다. 목간의 배후에는 종이 장부에 의한 관리나 운영이 있었고, 종이 장부의 배경에는 방대한 수의 목간이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전체 상을 상정하면서 개개의 목간의 기능이나 의미를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소 다른 점은 있을 것이나 정창원 문서는 한국의 목간을 생각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2.4 자료로서의 복잡성

이상 8세기의 살아 있는 문서인 정창원 문서의 유효성에 대해서 서술했으나 사용함에 있어 약간 주의를 요하는 것은 자료로서 매우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정창원 문서는 두 번의 커다란 파괴적 변화를 받았다.

앞서 서술했듯이 정창원 문서는 주로 사경소의 장부이지만 원래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던 공문류 등의 裏面을 2차 이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 2차 이용할 때에는,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 사용하기 때문에 1차 이용면(당초 사용면 즉, 공문류가 적혀 있던 면)으로서는 잘려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의 파괴이다. 이 원인의 하나는 19세기에 정창원 문서의 가치가 재인식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번에는 공문류가 주목받은 결과, 사경소의 장부 속에서 일부만을 뽑아 공문류의 면을 앞면으로 해서 다시 편성했다. 이것은 공문류로서는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후세의 관점에 의한 선택에 지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경소의 장부

로서는 커다란 파괴이다(<자료 13>).

정창원 문서는 正集·續修·續修後集·續修別集·塵芥文書·續々修의 6종으로 구성되지만, 이 가운데 正集은 지금 서술한 공문류를 뽑아 편성한 것이다. 그 후 근대에도 발췌에 의한 정리가 계속되어 續修에서 續修後集까지 편성되었다. 손상이 심한 것은 塵芥文書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장부를 정리한 것이 續々修이다(<자료 14>). 지금의 정창원 문서는 8세기의 문서가 그대로 전해진 것은 아니고, 사경소에서 공문류가 분단되고, 또 근대의 정리에 의해 사경소 장부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공문류에 주목하는 경우이든 사경소의 장부에 주목을 하는 경우이든 본래의 接續을 논리상 복원해서 생각해야 한다. 복원을 위해서는 문자의 내용의 연속성 이외 墨痕이나 界線, 종이의 형상이 이어지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세한 단서를 바탕으로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다. 현재 동경대학 사료편찬소나 궁내청의 정창원사무소에서는 복원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여 그 성과를 차례로 공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접촉을 복원한다는 번거로운 문제도 있지만 정창원 문서는 자료로서 풍부한 정보를 가지므로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3. 光明皇后願經의 세계

#### 3.1 사경소의 변천과 서사 상황

光明皇后發願의 一切經(五月一日經)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경이다. 또 경권의 제작에 수반되는 장부의 一群이 정창원 문서로서 남아있다는 것은 앞 장에서 서술한 대로이다. 본 장에서는 정창원 문서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사경의 경위를 설명하고 싶다.

우선 五月一日經의 서사를 담당한 사경소의 변천에 대해 서술한다(<자료 15>). 당시는 內裏나 유력 귀족의 밑에서 다양한 사경 사업이 행해졌다. 그 가운데 五月

一日經을 서사한 것은 造東大寺司의 사경소이지만, 그 연원은 光明皇后가 설치한 사적인 사경소로 거슬러 오른다.

### 3.1.1 개인 사경소

정창원 문서에 남은 가장 오래 된 사경은 神龜 4年(727)에 일어난 藤原光明子家の 개인적인 사업이다. 光明子は 聖武天皇의 부인이며 그때는 아직 皇后는 되지 않았다.

### 3.1.2 皇后宮職系統의 사경소

天平 元年(729) 光明子가 황후가 되고, 皇后宮職이라는 공적인 관청이 세워지자 사경 사업도 皇后宮職의 한 부서로서 일어나게 되었다. 부서의 명칭이나 기구, 장소에는 변천이 있었으나, 皇后宮職系統의 사경소는 天平 14年(742)까지 이어졌다. 최종적으로는 福壽寺에 사경소가 설치되었다. 五月一日經의 서사는 이 사경소에 의해 天平 5年(733)경에 시작되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정창원 문서에는 ‘常寫’와 ‘間寫’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常寫’가 사경소의 본래의 작업, 즉 五月一日經의 서사를 의미하며 ‘間寫’는 五月一日經 이외 임시로 하는 사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 3.1.3 동대사의 사경소

그 후 사경소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한다. 天平 14年(742), 동대사를 造營하는 관청(=당시에는 金光明寺造物所라 불렀다)의 한 부서로 조직이 바뀌었던 것이다. 인원이나 시설은 종래 그대로였으나 통괄하는 관청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造營 담당 관청의 하부 조직이 된 것으로 각종 물자의 조달이 진행되고, 점차 五月一日經 이외에도 대규모인 사경 사업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관청과 사경소가 이룩고 조직이 정비된 造東大寺司와 그 하부 조직인 사경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앞장에서 서술했듯이 최종적으로 정창원 문서를 남긴 것은 이 사경소이다.

## 3.2 五月一日經의 서사 상황

五月一日經의 서사를 담당한 사경소는 상기한 바와 같이 변천했으나 사경소라는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경 사업으로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轉機가 있었다.

### 3.2.1 『開元釋教錄』으로의 準據

天平 7年(735) 당에서 일본으로 귀국한 僧 玄昉은, 五千卷의 ‘經論’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듬해 사경소는 玄昉에게 경권을 빌려 본경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당시 최신의 경전 리스트인 『開元釋教錄』(開元 18年 唐 智昇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자료 16>). 이후 『開元釋教錄』의 入藏錄에 담을 大小乘經律論及聖賢集傳 5,048권을 목표로 해서 본경을 모아 서사해 나가게 된다(<자료 17>). 이렇게 해서 五月一日經은 『開元釋教錄』의 入藏錄에 준거한 일체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 3.2.2 서사의 중단과 願文의 설치

天平 12年(740) 五月一日經의 사경은 일시 중단되어 서사가 끝난 것에 願文이 붙여졌다. 원문에는 光明皇后가 죽은 부모(藤原不比等, 橘三千代)를 위하여 일체경을 서사했다고 적고 있다. 권말에 종이를 이어 붙여 원문을 적은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 서사가 중단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때마침 藤原廣嗣의 亂(藤原氏 한 사람이 정권의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사건)이 있었던 시기이다. 멀지 않아 上記 3.1.3의 사경소의 조직이 개편되는 일, 그것과 전후해서 下記 3.2.3에 보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전개를 보이는 것과의 관계 등도 생각할 수 있다.

### 3.2.3 비대화하는 일체경

天平 14年(742) 五月一日經의 서사는 4,561권까지 끝나고, 12盒의 櫃에 넣어졌다(<자료 18>). 이 단계에서 서사 가능한 것은 모두 끝나고, 나머지는 본경이 입수되지 않았던 것 같다. 『開元釋教錄』의 入藏錄에 기반을 둔 일체경은 여기에 와서 완성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은 <자료 18>에 『大乘經別生』(七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別生經은 抄出經典이며 入藏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방침의 변경이 명확하게 되는 것은, 天平 15年(743)이다. 본경의 貸借을 기록한 장부에 의하면 다른 사원이나 승려로부터 別生經이나 經律論의 주석서인 章疏까지 빌려던 것이다(<자료 19>). 또한 이후 일체경을 ‘經律論疏集傳’이라는 통합으로 표현하는 것도 보인다. 여기에 五月一日經은 『開元釋教錄』 入藏錄과는 다른 성격의 일체경으로 전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불전 연구가 미숙했다는 측면도 있으나 관련되는 불전에 손을 뻗어 어떡하든 갖춰 두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였을 것이다. 다양한 別生經과 章疏는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 3.2.4 서사의 종료와 勸經

章疏를 포함한 五月一日經의 사경은 天平勝寶 8歲(756)까지 꼼꼼하게 이어지다가 종료했다. 한편 天平勝寶 6年(754)부터 天平寶字 2年(758)에 행해진 것이 감경이다. 교생이 같은 본경에 의해 교정하는 것과는 다른 감경은 본경과는 다른 계통의 텍스트를 證本으로 해서 校訂하는 것을 말한다. 五月一日經의 경우 玄昉이 당에서 가져온 경전 등을 본경으로 했기 때문에 감경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圖書寮經(圖書寮에 모인 경전) 속의 唐經이 다루어졌다. 감경의 기록은 일부에 중복되어 남아 있다(<자료 20>). 그것에 의하면, ‘正’, ‘讀’, ‘證’의 역할이 있었고 아마도 세속인이 五月一日經을 확인하면서 승려가 경문을 읽고 차이가 있는 경우

에 다른 승려가 내용을 대조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를 속인이 적어 넣는 짜임새였다고 생각된다.

이 감경은 光明皇后 연고의 法華寺에 놓인 嶋院이라는 조직이 주도하고 京内の 주요한 사원의 승려를 동원하여 행했다. 많은 사원의 승려를 모아 감경을 거치는 일로서 五月一日經은 당시 일본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감경을 거친 五月一日經을 본경으로서 法華寺에서 한층 더 사경이 일어났다(善光朱印經).

또한 天平勝寶 6年(754)은 때마침 중국에서 鑑眞이 일본에 왔다. 그 때문에 鑑眞이나 견당사가 가지고 온 經卷群이 이러한 감경에서 사용되었다고 보는 설도 있다. 또 鑑眞은 일본의 일체경의 오류를 많이 고쳤다고 전해오는 말이 있다는 것도 주목된다.

이상에서 봤듯이 五月一日經은 장기간에 걸치는 자료가 남아있고, 다양한 轉機가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 의미에서 일체경 형성사의 사례로서 귀중하다.

### 3.3 製作 수법과 卷末紙背墨書

마지막으로 瑜伽師地論 卷45(<자료 21>)를 예로 경권의 현물에 남은 목서를 다루어 경권 제작의 수법이나 정창원 문서의 장부에 보이는 정보와의 대응 관계를 보고 싶다.

이 권은 麻紙 18枚를 이어 1紙 24行의 界線을 긋고 1行에 17字의 경문을 적는 지극히 표준적인 형식이다. 권말에는 원문을 적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軸 가까이 紙背에 미세하게 남은 목서이다(일본에서는 ‘卷末紙背墨書’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 經師인 山部花万呂나 校生인 大宅(大宅諸上), 土嶋(土師木嶋)가 스스로의 작업을 끝냈다는 취지를 적어 넣었다.

왜 여기에 적어 넣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 경권을 제작 수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사경을 하는 경우는, 우선 料紙가 되는 染紙를 풀로 이어 붙이고 그 卷首의 우측에 凡普通紙(이것을 端繼紙라 한다)와 假軸을 붙였을 것이다.

경문의 서사가 나아갈 때마다, 假軸을 심으로 해서 오른쪽부터 말아갔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쓰는 것이 끝나면 권말의 紙背가 마침 卷子의 표면을 감싸는 위치에 오게 된다. 여기에 서사 및 교정의 취지를 적어 넣고, 卷子를 펼치지 않아도 작업의 진행을 알 수 있도록 또 누가 담당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규의 축을 붙일 때에 축에 감기기 쉽도록 비스듬하게 잘라내기 때문에 묵서는 거의 남지 않는다(<자료 22>).

덧붙여 서사 후에 권말에 정규의 축을 붙이면 이번에는 왼쪽에서 감아 가기 때문에 권수의 假軸이 불필요해진다. 그래서 假軸은 벗겨내고(원래 풀로 붙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端繼紙를 假表紙로 했을 것이다. 이 端繼紙에 교정의 취지를 적어 넣는 경우도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이 假表紙를 本紙 第1紙의 오른쪽 끝과 함께 잘라내고 정규 표지를 붙이는 것이다(따라서 第1紙는 1행 분만큼 짧아진다). 이 잘려진 端繼紙는 反故紙로서 사경소의 帳簿 등에 2차 이용되었다.

그런데 정창원 문서를 보면 天平 11年(739)의 經師手實帳(經師가 작업량을 신고한 보고서)를 풀로 이어 붙인 장부 <자료 23>에 10月 29日의 보고로서 ‘山部花万呂請書合十二卷 … 瑜伽論第五帙十卷’이 있어 山部花万呂가 卷41~50의 서사를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一校를 담당한 大宅諸上은 同年 10·11월에 교정 작업에 임했으며, 二校를 담당했던 土師木鳴에 대해서는 校經帳(교정의 내용을 적은 장부) <자료 24>에 ‘十一月上番 … 瑜伽一卷十八枚山部’라는 것이 보여 분명히 현물에 남은 묵서와 대응한다.

이와 같이 五月一日經과 정창원 문서 속에는 대응하는 정보가 많이 남아 있어, 언제, 누가 서사한 것인가, 또 작업량과 거기에 소비한 시간이나 경권의 완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 3.4 제작 수법의 규모

방금 서술했듯이, 경권은 독특한 수법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造東大寺司의 사경소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사경은, 거의 같은 수법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다른 사경사업이나, 혹은 다른 지역 -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어떨까. 당연하지만 같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권에서는 經師나 校生の 이름을 말미에 적는 것이 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것이 있다. 서사 전에 본경을 감경한 취지를 적는 일도 있다. 단지 그것들은 사경의 엄밀성이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제작 수법의 문제와는 다르다. 대량 생산이 필요한 장면에서 과연 어떠한 수법이 이용되었던 것일까. 중국, 한반도, 일본의 수법에 관계성은 없는 것일까. 흥미 깊은 과제이다. 권말 지배나 제1지의 寸法 등, 제작 수법을 엿볼 수 있는 흔적에 주의하면서 각국의 고사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 마무리: 한국 고사경 연구를 위하여

이상, 정창원 문서와 光明皇后願經에 대해서 개관했다. 사경사업의 관계 장부와, 그 사경에 의해 제작된 경권의 현물을 갖추는 것은 드물며, 두 가지가 갖추어지는 것으로 사경이라는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 나아가 고대의 관청의 운영 실태라는 것이 밝혀져 왔다. 또 이번에 다룬 사경소나 光明皇后願經이 그렇듯이 일본의 고대 사경은 왕권과의 깊은 관련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에도 주목하고 싶다.

이번에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한국 고사경 연구에 이어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사경이라는 사업의 배경에는 아마 서로 닮은 조직이 있어, 운영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또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중요하다. 경권 그 자체의 연구와 함께 사경을 수행한 조직이나, 그 조직을 움직인 정치권력과의 관련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정창원 문서와 光明皇后願經을, 그것을 위한 참조사례로서 검토해주신다면 다행스럽겠다.

## <참고문헌>

- 堀池春峰. “光明皇后御願瑜伽師地論の書寫について.” 『南都佛教史の研究』, 法藏館, 1980.
- 皆川完一. “光明皇后願經五月一日經の書寫について.” 『正倉院文書と古代中世史料の研究』. 吉川弘文館, 2012.
- 大平聰. “正倉院文書研究試論.” 『日本史研究』 318(1987).
- 杉本一樹. “正倉院文書.” 『日本古代文書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 山下有美. 『正倉院文書と寫經所の研究』. 吉川弘文館, 1999.
- 杉本一樹. “正倉院の古文書.” 『日本の美術』 440, 至文堂, 2003.
- 宮崎健司. 『日本古代の寫經と社會』. 塙書房, 2006.
- 榮原永遠男, 『正倉院文書入門』. 角川學藝出版, 2011.

[資料出典] \* 大日古 = 『大日本古文書』編年文書 卷・頁

- 資料 1 正倉院
- 資料 2 現在の 收納狀況(西宝庫中倉階上)
- 資料 3 筑前國嶋郡川辺戶籍(大宝 2年, 正集 38卷, 大日古 1卷 97-101頁)
- 資料 4 御野國味蜂間郡春部里戶籍(大宝 2年, 正集 22卷, 大日古 1卷 15-21頁)
- 資料 5 和泉監正稅帳(天平 9年, 正集 13卷, 大日古 2卷, 75-78頁)
- 資料 6 瑜伽師地論 卷45(聖語藏經卷 第三類 天平十二年御願經 第77号)
- 資料 7 筆墨紙充帳(天平 20年, 正集 12卷, 大日古 24卷, 487-505頁)  
\* 經師마다 筆・墨・紙의 支給을 記錄한 帳簿
- 資料 8 食米并物雜用帳(天平宝字 2年, 續修後集 19卷, 大日古 14卷, 55-58頁)  
\* 食用의 米이나 雜物을 寫經所가 받은 것을 記錄한 帳簿
- 資料 9 布施法(天平勝宝 3年, 續々修 46帙 6卷, 大日古 3卷 487-489頁)
- 資料10 寫經所의 仕事와 帳簿(杉本一樹, 『正倉院의 古文書』에서 引用)
- 資料11 木簡(福岡縣高畑廢寺跡出土, 『日本古代木簡選』에서 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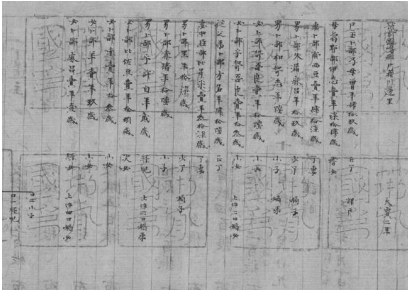
- 資料12 食物用帳(天平宝字 6年, 續修別集 20卷裏, 大日古 15卷 378-390頁)
- 資料13 正倉院文書の整理(榮原永遠男, 『正倉院文書入門』에서 引用, 一部改変)
- 資料14 正倉院文書の整理(榮原永遠男, 『正倉院文書入門』에서 引用)
- 資料15 寫經所の變遷(榮原永遠男, 『正倉院文書入門』에서 引用)
- 資料16 寫經請本帳(天平 8年, 續々修 16帙 8卷, 大日古 7卷 54-56頁)
- 資料17 寫經司啓(天平 11年, 續々修 17帙 3卷, 大日古 2卷 157-158頁)
- 資料18 寫經司解(天平14年, 續修後集 26卷, 大日古 2卷 322-323頁)
- 資料19 律論疏集伝等本收納并返送帳(天平 15年, 正集 33卷裏, 大日古 8卷 185-193頁)
- 資料20 十輪經 卷1(聖語藏經卷 第三類 天平十二年御願經 第116号)
- 資料21 瑜伽師地論 卷45 卷末紙背墨書(聖語藏經卷 第三類 天平十二年御願經 第77号)
- 資料22 經卷의 製作手法
- 資料23 經師手實帳(天平 11年, 續々修 19帙 2卷, 大日古 7卷 300-378頁)
- 資料24 土師眞木島校經帳(天平 11年, 續々修 25帙 2卷, 大日古 7卷 404-411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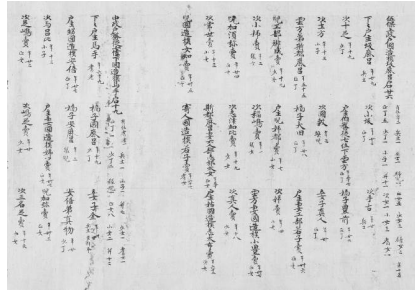
<資料 1> 正倉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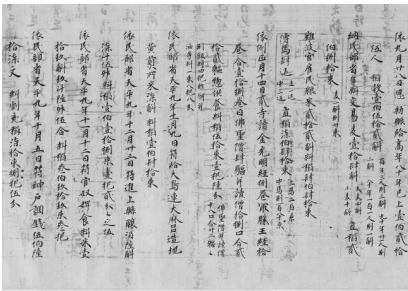
<資料 2> 現在の収納状況(西宝庫中倉階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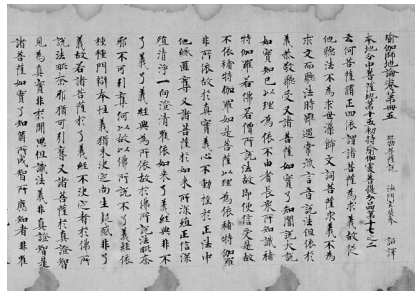
<資料 3> 筑前国戸籍(大宝 2年 = 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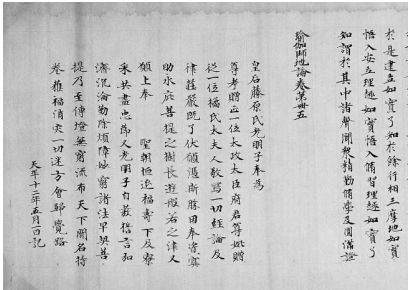
<資料 4> 御野国戸籍(大宝 2年 = 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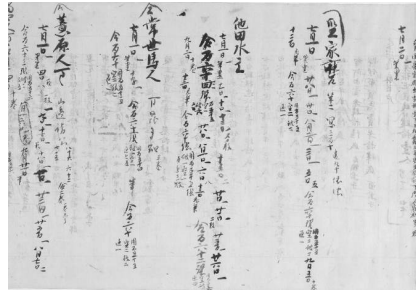
<資料 5> 和泉監正税帳(天平 9年 = 737)



<資料 6-1> 瑜伽師地論 卷45巻 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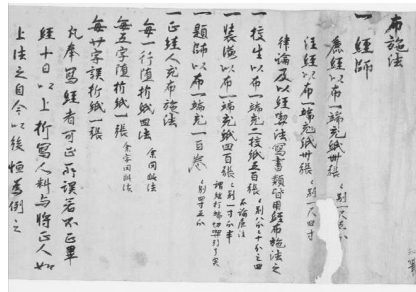
<資料 6-2> 瑜伽師地論 卷45巻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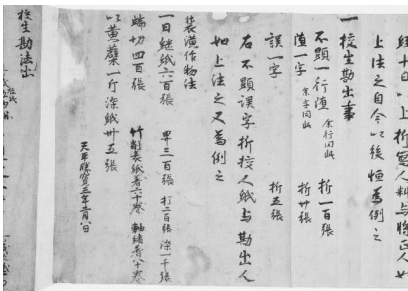
<資料 7> 筆墨紙充帳(天平 20年 = 748)



<資料 8> 食米并物雑用帳  
(天平宝字 2年 = 758)



<資料 9-1> 布施法(天平勝宝 3年 = 751)



<資料 9-2> 布施法(天平勝宝 3年 =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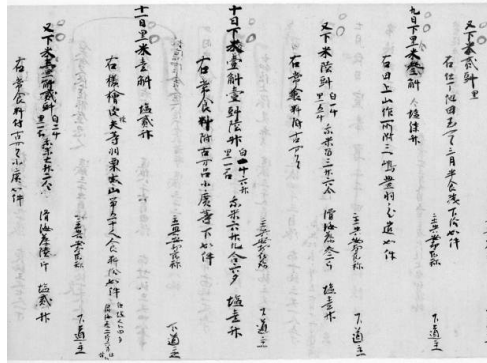
仕事の区分	写経所内部での仕事		上級官可・外部機関との連絡	
	願行界 書写 校正 装背	写経用品・物資の支給と その記録 経典謄写 〔梵漢譯經、上紙類〕 底本復写〔完本類〕 用紙・筆・刷支類 〔家業簿類〕 校正記録〔校類〕	写経用品・物資の 請求 本経申請 経典謄写文書は必 経典申請〔筆類申 出納記録作成 〔経典出納帳〕 経典目録作成	経巻の管理出納 経典謄写文書の 作成保管 出納記録作成 〔経典出納帳〕 経典目録作成
労働管理	作業報告〔手実〕 勤務時間管理 〔課外労働帳〕	布施支給	布施申請〔布施案〕 事務報告〔告知・行事〕 勤務時間報告〔上日帳〕	
機構運営	〔月報経帳〕	衣蓋・食料等支給 〔淨衣用紙・食口案・ 裁用帳・雜物用帳〕	予算案作成〔用度案〕 資料・雜物の申請	
記録作成の 目標	写経生 〔経典・校生・装束〕	写経所案主・別当		写経所外 の機関

註：写経所の弊の弊類に類することなく、諸法全部に当てはまるようとしたもの。〔 〕内は、文章の類の表示である。  
天平宝字二年(760-762)には、華嚴宗の「諸法集」の編成と関係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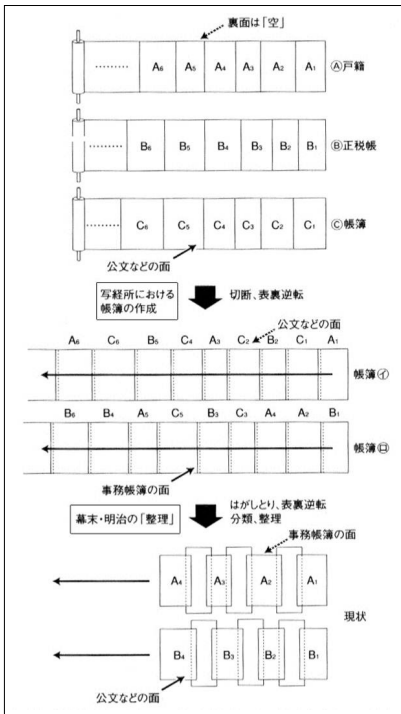
<資料 10> 写経所の仕事外帳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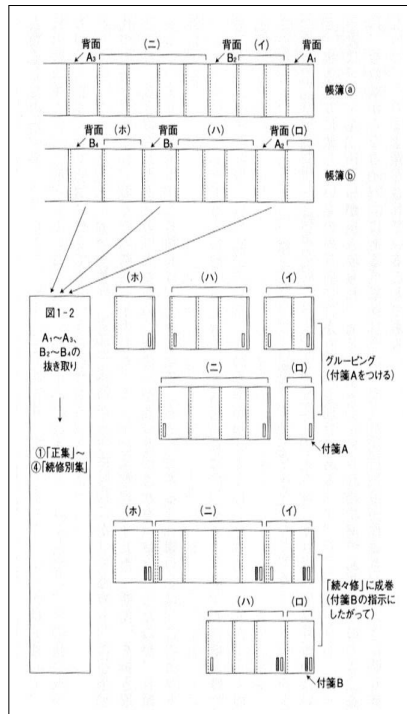
<資料 11> 木簡



<資料 12> 食物用帳(天平宝字 6年=762)



<資料 13> 正倉院文書の整理(正集~別集)



<資料 14> 正倉院文書の整理(続々修)



↓

○寫經可啓 文正院院	寫經司啓
(小杉本 讀四) 卷一七七三	
合依開元目錄應寫一切經伍仟肆拾捌卷	
大小乘經貳仟柒佰玖拾壹卷	
大小乘律伍佰卷	
大小乘論壹仟貳佰拾陸卷	
賢聖集傳伍佰肆拾壹卷	
見寫大小乘經論并律貳仟貳佰拾捌卷	
大乘經一千廿一卷	
大乘律卅三卷	
大乘論二百五十九卷	
小乘經三百七十三卷	
小乘律三百八十二卷	
小乘論七十六卷	
賢聖集傳六十四卷	
未寫大小乘經論并律貳仟捌佰叁拾卷	
大乘經一千一百五十二卷	
大乘律十一卷	
大乘論二百五十九卷	
小乘經二百卅五卷	
小乘律六十四卷	
小乘論六百廿二卷	
賢聖集傳四百七十七卷	
天平十一年二月十三日史生高屋連赤方呂	
小野	

<資料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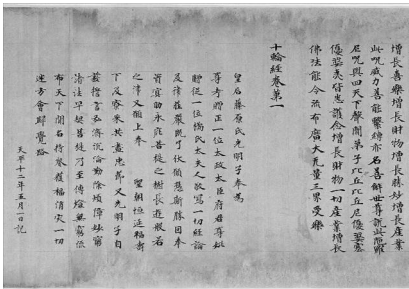
○寫經司解 文正院院	(續修後集二十)
合大小乘并論傳四千五百六十一卷	帙四百七十枚
一橫 大般若經三百卷	帙卅
二橫 大般若經三百卷	帙卅
三橫 大乘經四百廿七卷	帙卅三
四橫 大乘經三百五十五卷	帙卅六
五橫 大乘經三百廿五卷	帙卅六
六橫 大乘經并律三百五十三卷	帙卅二
七橫 大乘經別生并律三百六卷	帙卅四
八橫 大乘論四百八十九卷	帙卅九
九橫 小乘經五百卅卷	帙卅七
十橫 小乘律四百三卷	帙卅二
十一橫 小乘論四百七十四卷	帙卅八
十二橫 傳集二百九十八卷	帙卅三
天平十四年十二月十三日勘高屋	

<資料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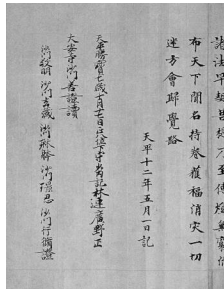
<p>○律論疏集傳等本收納并返送帳<small>正文會院 （正集卷十二）</small></p> <p>律論疏集傳等本收納并返送帳 天平十五年五月</p>	
五月	<p>一日納四分律一部六卷 以七月四日返送四男亮平榮師二司受安院院使伴廣人成</p> <p>右金光明寺僧等 受酒主</p>
六月	<p>二日納毗尼律二卷 以十五年十二月十五日返送使伴廣人成 加酒主</p> <p>右具奔夫德所 使辛國人成</p> <p>十三日納毗尼律二卷 以十五年十一月十五日返送高院令處醫手</p> <p>右良弁師所 使人成</p> <p>同日納法花玄贊三卷 第一 第五 以十五年八月十五日返送使高野百方呂</p> <p>右律師行信師所 使人成</p>
七月	<p>廿一日納法花攝釋一部四局 以十五年七月二日返送使檢務方呂</p> <p>右玄助僧正所 受酒主</p>
八月	<p>四日納法花經一部八局 以十五年十二月十八日返送使紀少磨方呂</p> <p>右玄助僧正所 受酒主</p> <p>十五日納律論集博章等合二百卅六卷 軼十二枚</p> <p>右置元興寺北宅一切經內 受酒主 額名注別紙</p> <p>廿日納法花經一部十卷 以法經經 第八卷 並經水 並經水 並經水</p> <p>右與國寺西院內靈妙經部令卷 經部令卷 經部令卷</p>
九月	<p>廿八日納四分律二卷 第一 第三 以三月十三日返送使酒主</p> <p>右善攝師所 受酒主</p>
十一月	<p>九日納經要一部四卷 以十六年十月二日返送本所行傳抄院明一知阿刀是入</p> <p>右藍慈訓師所 受酒主 金剛三昧論一部二卷 經部令卷三編</p>
十二月	<p>四日納大卷抄三卷 第四 第五 第六 以十六年四月十五日返送使人成</p>

(後略)

<資料 19>



<資料 20-1> 十輪經 卷1 卷末 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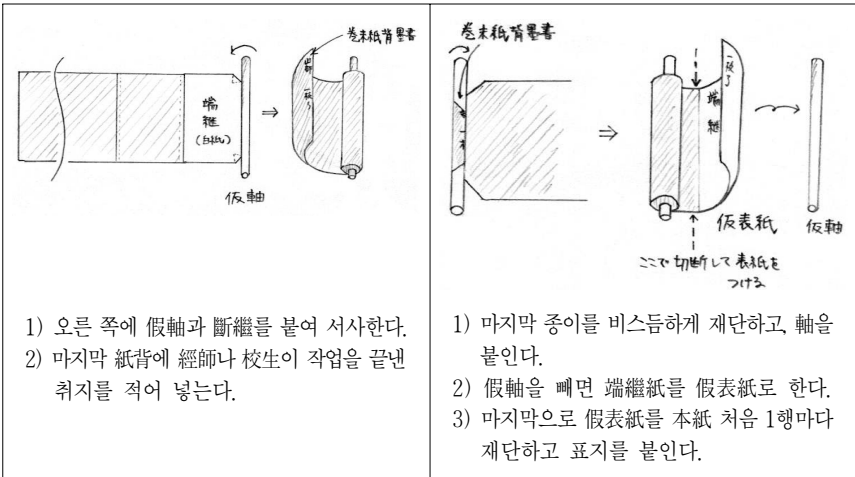
<資料 20-2> 十輪經 卷1 重跋

天平勝寶...林連廣野 正  
 大安寺沙門善證 讀  
 沙門敬明 沙門...證  
 =>



⇒ 山部花万呂  
大宅一校 二校土嶋...

<資料 21> 瑜伽師地論 卷45 卷末 紙背墨書



<資料 22-1>

<資料 22-2>

